

# 도내 어린이집 36.5%가 초과보육

### 전국 평균 28.5%... 사회복지법인·민간어린이집, 만 1·2세반 비율 높아

도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는 교사 1인당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어린이집은 3곳 중 1곳이 초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

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정원초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28.5%다.

초과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보다 1~2명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비율은 36.5%로 제주(57.9%), 울산(54%), 전남(47.5%), 충남(42.5%), 충북(42.2%)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았다. 이어 경북(36.3%), 경기(35.6%), 대전(32.2%), 강원(27%), 세

종(22.6%), 부산(22.3%), 인천(17.4%) 등의 순이었다.

운영 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50.6%), 민간어린이집(47.4%) 등의 초과보육 운영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17.2%), 직장어린이집(8.1%)은 그 비율이 낮았다.

정원초과 상태인 도내 어린이집의 연령별 영유아반을 보면 만 1세반이 전체 21.9%로 가장 많이 초과 보육반이 운영되고 있었고 만 2세반이 18.1%로 그 뒤를 따랐다.

문제는 보육교사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보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도 강해지면서 결국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 권리"라며 "이 규정을 정해놓고 10년간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3년 이후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1년을 연장했다"며 "이제라도 (초과보육을 인정한) 탄력보육지침을 폐기하고 보육 현장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새농촌육성기금 용자지원사업 신청

### 순창군, 28일까지 접수

순창군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새농촌육성기금 용자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상반기에 지원한 용자금 규모는 12억 1500만원이었으며 하반기 추가 용자 지원가능액은 5억 3200만원이다.

용자지원 한도액은 농업인 3천

만원 농업법인은 8천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이여 이율은 연 1.5% 저금리로 지원된다.

용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10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 조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내장산 생태관광 페스티벌 폐막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15~16일 이틀간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단풍생태공원(네이처 센터) 일원에서 펼쳐졌다.

'미래를 위한 약속,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자연을 체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관광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생태관광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통해 국립공원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하는 '내장산 자연해설 탐방프로그램'은 내장산의 경치를 즐기며 쉽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고창 용계마을을 비롯한 환경부 지정 20개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에서 생태관광을 소개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해 생태관광의 교류의 장을 열었다.

생태관광 특성을 살려, 마을 주민들과의 협조를 통한 나뭇가지, 짚 등으로 엮은 친환경재료를 활용한 홍보 및 체험부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1시간 1생태관광지에 대한 사업 안내와 지역별 홍보 동영상 상영해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고민형 기자



**제근상 수상식**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가 지난 14일 46개 연례제 근상사의 위국·헌신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6회 제근상' 수상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학교장 류성식 소장이 황재훈 상사에게 제근상을 수여하고 있다.

## “전국체전 9위 목표달성 도민 사기 높여”

### 송하진 도지사 “선수단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송하진 지사가 전북도를 울 전국체전 전국 9위 목표 달성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14일 전북도선수단에게 보내는 격려문을 통해 “남초 목표였던 종합 9위의 좋은 성적을 달성해주시고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도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과 선수단을 지원해 준 교육청, 도의회 관계자, 체육회 고문·임원 등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

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안에 소중한 가치들이 쌓였을 것”이라며 “선수단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이런 분위기가 침체된 전라북도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생동하는 전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올 전국체전에서 46개 종목에 1,570명의 선수단이 종합9위를 목표로 출전했다. 전북선수단은 대구와 전남을 제치고 종합 9위와 10위를 놓고 강원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뒤심을 발휘해 9위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2018년 익산(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체전)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으로 이러한 저력과 활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 도 ‘스쿨팜’ 초등학교생들에게 큰 인기

전북도에서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쿨팜’이 초등학교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쿨팜 지원사업은 학교 내 미니텃밭이나 텃밭상자(대형화분)를 조성하고 선생님(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수확하여 시식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전라북도도는 도시화에 따라 농업을 경험하지 못하는 도시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기반구축사업(스쿨팜)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방식이 일회성 수확체험이 아닌 농작물 재배과정마다 4개월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더욱 큰 흥미를 주고 있다.

4월에 감자, 콩, 토마토, 고추 등 채소 식재 체험을 시작으로 10월 현재는 전통 방식인 낫, 홀태, 도리깨, 탈곡기를 이용한 벼 베기와 탈곡 체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엔 직접 재배한 배추를 수확해 김장체험을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도는 스쿨팜 지원사업을 최초 2013년도 2개 학교에서 2014년도 16개소, 2015년도 30개소로 늘려왔으며, 2017년도엔 4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 외국인전용 셔틀버스, 시·군 축제 기여

### 연말까지 1000명 넘길 듯

전북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전용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가 시·군 축제 관광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광총괄과에 따르면 올해 셔틀버스를 이용해 전북의 축제장을 방문한 외국인이 803명(23대 / 평균 34.9명 탑승)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16일까지의 탑승객으로 앞으로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와 내장산 단풍 시즌까지 더해지면 연말까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과는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31개 지사)와 서울 소재 주요 게스트하우스, 여학당, 관광안내소에 셔틀버스 리플렛

을 배포하였고, 전라북도셔틀버스 홈페이지, 영·중·일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또 지난 3월 말레이시아 관광박람회와 타이베이 관광설명회를 위해 현지 출장 시 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타이베이시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현지 지사의 페이스북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해 셔틀버스를 홍보한 바 있다.

남은 11월과 12월에는 내장산 단풍을 비롯해 군산근대역사문화거리와 전주한옥마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등에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내장산 단풍의 경우 첫 운행일인 10.23(일)에 140명이 발권 하여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옥마을과 군산근대역사문화거리 연계상품 또한 인지도가 있어 탑승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본사 인사**

▲신광영 정치경제부장  
 명: 의원면직  
 (10월 14일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